

진도군, 수산부문 발전 기여 대통령 기관 표창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수산자원증강 등 해양강군으로 위상 높여



진도군이 청정 해양환경 조성 등 수산부문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바다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증강 등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진도군이 대통령 표창의 영광을 안았다.

진도군은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3,000여톤을 수거·처리했다.

특히 깨끗한 바다 가꾸기 추진의 일환으로 바다정소의 날과 진도군 특수 시책인 해양환경클린운동과 연계해 유관기관과 군민들의 해양

환경정화활동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 연안 해역에 최근 3년간 전복(8만9,000㎡), 꽃게(200,000㎡), 해삼(6만2,000㎡) 등 우량수산물양묘를 방류하고 어장환경 복원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해 수산자원 증가를 유도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희생자 가족 편의시설과 교통지원, 실종자 및 유류품 수색 등 사고수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소상공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다환경과 수산자원 증강 등 다양한 수산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진도군의 군정목표인 '군민소득 1조원 달성,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무안군, 해수욕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원 교육 실시

무안군은 군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일 개장할 예정인 홀통과 톱머리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사항은 백사장, 편의시설의 관리 상태와 유영구역 안전부표, 안내표지판, 안전감시탑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인명 구조함, 구명보트 등의 비치 유무를 확인했고,

안전교육은 해수욕장 현장근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요원 8명에 대하여 목포해양경비안전서의 지도로 인명구조법, 심폐소생술, 안전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특히 휴식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무안소방서 등과 연계해 전문적인 인명구조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군,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찾아가서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작물별 생육단계에 적합한 핵심기술 교육을 실시해, 최신 농업기술을 농업인들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환경 벼 재배 실용기술 고추, 참깨, 과수, 고령농업인 틈새 소득작목, 가족사관관리, 가뭄 및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PLX농약허용물질목록제외, 유용미생물 사용요령 등에 대해 전문 지도사의 질의 응답식 강의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영농교육은 문제점 해결 위주의 현장 교육"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완도 생일도, 힐링의 섬으로 각광

관광객 발길 이어지며 편의시설 속속 개업



섬을 찾아 떠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완도의 아름다운 섬 생일도가 주목받고 있다.

완도군 생일도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위에 선정되면서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업소가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생일도는 부속섬 덕우도를 포함해 6개 마을에 850여 명이 살고 있으며 2016년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되면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올해 초 일반음식점 2개소가 개업한데 이어 당구장과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또한, 20년 만에 문을 연 중국 음식점도 인기를 끌고 있다.

생일도는 20여 년 전에는 중국 음식점이 성업중이었으나, 점차

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은 바 있다.

중국음식점은 생일도에서 나는 어패류와 해조류를 재료로 생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일도짬뽕을 개발해 곧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음식은 바쁜 바닷길로 인해 끼니를 거르기 쉬운 어민들과 생일섬길 트래킹을 마친 관광객들이 손쉽게 허기를 달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

생일도는 생일도8경, 섬길드레킹, 멧돼지 좋은 곳 등 품격 높은 관광자원이 각종 방송과 언론,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힐링 관광을 원하는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승현 생일면장은 "생일도는 산림자원보다 탄소흡수율이 5배 많은 해조류 양식장과 백운산의 울창한 삼목수림에서 뿜어나는 공기비타민인 산소음이온이 대도시의 50배 이상 발생하는 곳"이라며 "바쁘고 찌든 도시생활에서 지친 몸을 힐 수 있는 최적의 섬이다"고 말했다.

생일도 가는 배편은 약산 당목항에서 25분이 소요되는 여객선이 하루에 7회를 왕복운항하고 있으며, 완도항에서는 2회 왕복운항하고 있다.

완도군은 생일면 금곡리에 8월 중 회의실과 객실을 겸비한 대규모 펜션이 문을 열면 관광객들이 더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섬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무선~여천초 구간·마래터널 앞 도로 내일 '개통'

여수시가 오는 7일 무선에서 여천초등학교 간 도로와 민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를 일제히 개통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전 화장동 거성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서 무선~여천초등학교 간 도로 개통식을 열고 오후에는 민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오가는 차량이 분산돼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래터널 앞 도로도 종전보다 폭이 2배 가까이 넓어져 같은 날 개통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재난안전특별교



무선~여천초 간 도로...길이 1460m, 폭 25m

마래터널 앞 도로 320m 폭 4m→8.5m 확장

터널 입구에서 '마래터널 앞 도로 개통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선~여천초등학교 간 도로는 지난 2006년 착공에 들어가 이달 완공됐다. 규모는 길이 1460m, 폭 25m(4차로)로 사업비 141억원이 투입됐다. 도로 양쪽 끝에는 라이딩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졌다.

시는 이 도로의 개통으로 확장지

부세 8억원과 시비 18억원 등 총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래터널 앞 도로 320m의 폭을 4m~5m(1차로)에서 8.5m(2차로)로 확장했다.

그동안은 도로 폭이 너무 좁아 차량 교행이 불편해 교통체증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성리 검문소

래해변과 해양레일바이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마래2터널도 함께 개통한다. 마래2터널은 지난해 12월 낙석이 발생한 이후 같은 달 26일부터 차량운행이 통제되었다.

시는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1차선인 마래터널의 특성상 안전한 교통흐름을 위해 신호체계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 개통, 확장, 보수·보강 등 도심 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양·혈압·콜레스테롤 건강검진

당뇨 검진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 항목	진행 전	진행 후
신장질환 발생 시점	42%p 감소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18%p 감소	

*연평균 건강수명이 증가하며,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